

2013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 시험 정답 및 해설

2013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 시험 총평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시험이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공무원 사회 과목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중요 내용을 단 20문제로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문제는 사회 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각 과목의 핵심적인 중요 사항을 묻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항 수라고 할 수 있어서 골고루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지방공무원임용 사회 필기 시험(이하 지방직 시험)을 제외하면 먼저 치러졌던 2013년 안전행정부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이하 국가직 시험)이나 이번 서울시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 시험(이하 서울시 사회 시험)은 꼭 출제되어야 하는 중요 문제들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은 그래프나 표를 사용한 문제들이 많고 제시문도 길어서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공무원 시험으로서는 부적합한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이 공무원 시험으로 부적합하다고 보는 이유는 국가직 시험처럼 문제가 출제되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난이도의 차이는 조정 점수로 상쇄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시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실제로 문제를 풀어서 맞춘 수험생들보다 풀지 않고 다른 배점 높은 공통 과목을 푼 수험생들이 보다 합격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이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득을 봐야 하는 것인데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찍고 넘어 간 사람들이 문제를 힘들게 풀어서 맞춘 사람들보다 이득을 보게 된다면 그러한 시험은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시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제를 풀어서 맞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만 몇 점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어야 공평한 시험입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직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아직 공무원 시험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제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에 비해 그래프나 표를 사용하여 자료의 해석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줄었음은 물론 제시문의 길이도 적당했다고 할 수 있으나 불의타가 너무 많아서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타의 경우 절대로 합격을 좌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험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은 지방직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절대 조건이 남들도 다 맞는 기본 문제들을 확실히 맞는 것이라고 할 때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문제들로 도배가 된다는 것은 그냥 풀지 않고 넘겨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정 점수제도가 도입된 선택 과목의 경우는 운이 아니면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많을수록 고득점한 수험생 숫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고득점한 수험생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평균은 하락하여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에 비해 조정 점수에서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선택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했던 시험이 지방직 시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직 시험이 사회를 선택한 수험생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시험이었다면 지방직 시험은 과목 간에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시험은 국가직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에 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발전된 형태로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적정해서 문제를 풀어서 맞춘 수험생이 그렇지 않은 수험생보다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와 적정 난이도를 지켰기 때문에 조정 점수에서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이득을 취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시험의 경우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절대 조건이 남들도 다 맞는 기본 문제들을 확실히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한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안이 되는 점은 다른 과목도 쉽게 출제되어 사회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고 선택 과목의 한 문제에 주어지는 점수가 공통 과목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의 실수가 만회할 없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는 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이번 서울시 사회 시험의 경우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격권 수험생들의 경우 사회가 다른 과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다른 수험생들이 획득하는 점수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90~95점은 맞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100점을 맞는 거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내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직 시험보다는 이번 지방직 시험이 그리고 지방직 시험보다는 서울시 시험이 공무원 시험으로서는 보다 적합한 시험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방직 시험 직후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상한 사회 문제를 풀어 보라고 할 때 저는 이번 지방직 시험에 불의타가 많이 출제되었다고 해서 몇 년에 한 번 출제될 수 있는 문제까지 맞추기 위해 공부량을 늘리시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회만 잘 본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맞겠다는 심리이고 도박입니다. 시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은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맞는 문제를 맞는 선에서 선방하고 공통 과목으로 승부 보는 것이 합격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까지 치른 수험생들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년 시험은 4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기간이 8개월로 줄어 들었다 해도 합격권 근처에서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에게는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수험생의 실력은 시험을 치르면서 급상승합니다. 국가직 시험, 지방직 시험, 서울시 시험을 거치면서 수험생 여러분의 실력은 급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실력이 급상승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수업을 다시 들으면 다 아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전혀 집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회나 한국사 점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 올해 12월까지의 국어나 영어 등 자신이 부족한 과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어나 영어 시험이 쉽게 출제되면 다른 합격권 수험생들에 비해 점수가 낮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 선방하지 못하면 합격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국어 실력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영어나 국어 공부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이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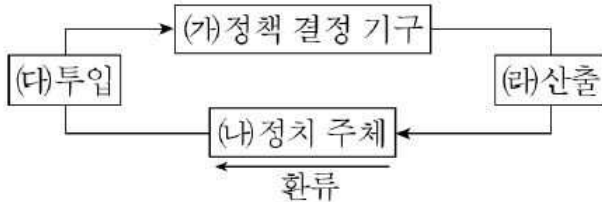
사회 등 선택 과목의 경우는 기본서의 회독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서의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보이면서 사회 등 선택 과목 공부가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제집의 해설을 그냥 넘겼다면 한 번 다시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문제 싸움입니다.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 문제를 더 맞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8개월 내내 영어나 국어 공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영어나 국어 점수가

아무리 월등해도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8개월은 정말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하는 과목 즉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고 공부할 때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수험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 전부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 인생에서 보면 8개월 늦게 합격한다고 해서 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8개월을 더 공부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아깝게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일수록 8개월은 정말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할 것도 없는데 같은 책을 8개월 동안 또 봐야 한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겸허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지옥에서 구해내어 돌아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계단을 남겨 놓고 에우리디케가 뒤를 돌아 보아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에우리디케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 돌아 보면 이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계단만 밟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결국 이 상황을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계단만 밟으면 됩니다.

II 2013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 시험 정답 및 해설

1. 다음은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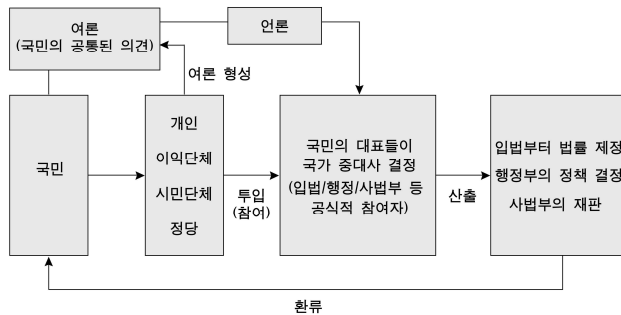
- ① (가)에서 현대 정부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
- ② 현대 사회에서 (나)는 국회이다.
- ③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다)에 해당한다.
- ④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라)에 해당한다.
- ⑤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그릴 수도 있다.



- ① 정책은 의회, 대통령, 행정 각 부처의 장관 등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다. 즉 정책 결정 기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공식적 참여자를 말한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은 강하지만, 고도의 지식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약하다. 반면에, 행정부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관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늘날 정책 결정에 있어서 행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 ②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즉 국회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③ 환류는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환류 즉 (라)에 해당한다.
- ④ 산출은 정부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은 모두 산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 ⑤ 투입이란 국민 개개인, 집단, 계층 등의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 정부에 대한 지지 혹은 정부에 대한 불만표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투입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④

2. 다음 (가), (나)와 관련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A법 제5조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가)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 ②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 (가)가 적용된다.
- ③ (나)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④ (나)가 적용되는 피해에 대해 국가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나)는 사회 정의 및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제 제도이다.



(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이고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이다.

- ① 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자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회 정의 및 공평 부담의 취지하에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 ②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에는 손실 보상이 적용된다.
- ③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를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④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⑤ 손실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특별한 희생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손실을 말한다. 【정답】 ④

관련 법도항 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적중유제

이동훈의 명품 사회 문제집 184p 71번

71. (가), (나)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중략) ...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군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훈련지를 살펴보고 복귀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행위는 (가)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이 시위 현장의 질서 유지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 경찰관에게는 (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시로부터 등갓길 교통 지도를 위탁 받은 노인이 한눈을 판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는 (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 며칠 전의 폭우로 일부 훼손된 제방 도로를 건넌 행인이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그 유족은 (나)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이고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이다.

- ① 군인은 공무원이고 훈련지를 살펴 보고 복귀하는 것은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은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에 따라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경찰관이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시위 참가자들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 지도를 위탁 받은 노인은 공무를 위탁 받은 私人에 해당하고 한눈을 판 것은 노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 ④ 훼손된 제방 도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이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국가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유족 등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④

3. 다음 사례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과 상속액으로 옳은 것은?

갑은 아내 A, 딸 B, 노모(老母) C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없이 전 재산 7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① A : 3.5억원 B : 3.5억원
- ② A : 4.2억원 B : 2.8억원
- ③ A : 4.2억원 C : 2.8억원
- ④ A : 3억원 B : 2억원 C : 2억원
- ⑤ A : 3억원 B : 3억원 C : 1억원



갑의 상속인은 딸 B와 아내 A이다. 아내 A의 상속분은 딸 B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갑의 전 재산 7억원은 아내 A와 딸 B에게 1 : 1.5 즉 2 : 3의 비율로 상속된다. 딸 B의 상속액은 $\frac{2}{5}$ 가 되어 2.8억원($7억 \times \frac{2}{5}$)이고 아내

A의 상속액은 $\frac{3}{5}$ 이 되어 4.2억원($7억 \times \frac{3}{5}$)이다. 【정답】 ②

4. 다음 중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다.
- ②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③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며,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제도이다.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양당제이다. 양당제란 두 개의 정당이 자유선거를 통해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고 그 중 한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나 양당 간에는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당 체계를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정당의 수가 두 개 이상이나, 실제로 정권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당의 수가 둘이면 양당 체계로 보아야 한다.

- 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다.
- ② 다당제란 3개 이상 5, 6개의 정당이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고, 어느 한 정당도 집권에 필요한 득표를 못하여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 체계이다.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 ③ 다당제 하에서는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집권하기 위해서는 연립 정권을 구성해야 하고 연립 정권은 서로 다른 정당의 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깨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다.
- ④ 단독정권이란 정당정치에서 하나의 정당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는 정권을 말한다. 양당제의 경우 연립 정권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단독 정권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다당제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당의 수가 둘 뿐이므로 유권자의 정당 선택도 용이하다.
- 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다. 【정답】 ④

5. 교토 의정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과 같은 유형의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고른 것은?

- 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나.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 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입국들에게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라. 불문화된 형태지만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 ⑤ 다, 라



국제법의 法源으로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조약이란 국제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 주체 상호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 이외에 우리나라가 협약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일반 조약도 포함된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이나 교토의정서는 모두 조약이다.

- 가.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나. 조약은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 법의 일반 원칙은 헌법 제6조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라. 불문화된 형태지만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국제관습법이다. 【정답】 ①

적중유제

이동훈의 명품 사회 문제집 115p 9번

9. 자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94개국 대표단은 교토의정서 시한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2% 줄이기로 한 규약으로, 이번 총회에서는 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음 체제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견이 있었다. 의무 감축 대상인 선진국들은 새로 부상한 주요 배출국이 참여하는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근거로 의무 감축 대상국의 재분류를 반대하였다.

—〈보 기〉—

갑: ㉠은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는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돼.

을: ㉡은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로서 체결 당사국을 구속하지.

병: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

정: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반영한 의무 감축 대상국 지정을 찬성하는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국제법의 法源으로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조약이란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 주체 상호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 이외에 우리나라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일반 조약도 포함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는 모두 조약이다.

갑: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조약이다.

을: 교토의정서는 조약이므로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로서 체결 당사국을 구속한다.

병: 국제 사회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 간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의무 감축 대상국 지정에 관해 대립하는 것은 국가 간 갈등을 보여준다.

정: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근거로 의무 감축 대상국의 재분류에 반대한다. 【정답】 ③

6. 다음 중 법과 관련된 능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① 갑: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② 을: “권리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능력이야.”

③ 병: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법적 효과가 없어.”

④ 정: “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의사 능력이 있어.”

⑤ 무: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



① 의사능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이해타산(理解打算)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제한 능력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것과는 별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행위 능력의 유무를 정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행위 능력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의 경우엔 이해타산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법인이 존재할 수 없고 이런 법인이라면 보호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

- 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법인의 권리 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자연인과 동일하게 모든 영역의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성질상 자연인과 같은 생명권, 신체권, 가족권, 상속권 등은 가질 수 없다. 다만 유증은 받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 유증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산권이나, 성명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인정된다.
- ②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권리 능력을 갖는다.
- ③ 의사무능력이란, 즉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판별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고도의 정신병자, 마약을 흡입한 상태의 중독자, 완전히 술에 취한 사람,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유치원에 다니는 정도의 아이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점에 대하여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 ④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이란, 즉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판별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갓 태어난 유아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갖는다. 의사 능력이 없을 뿐이다.
- ⑤ 행위 능력 제도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것과는 별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행위 능력의 유무를 정하고, 행위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경우마다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 아래 당연히 보호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행위 능력 제도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가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③

적중유제

이동훈의 명품 사회 문제집 154p 32번

32. (가)~(다)의 민법상 능력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나)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 ① 사단 법인은 재산의 상속에 있어 (가)를 갖는다.
② 정신 능력이 부족한 사람(만 20세)에게 (나)가 없는지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③ 회사원(만 30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판 행위는 (다)가 없어 취소할 수 있다.
④ 고등 학생(만 18세)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전거를 판 행위는 (가)와 (나)가 없어 취소할 수 있다.



(가)는 권리 능력, (나) 행위 능력, (다) 의사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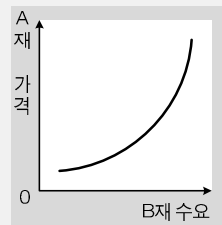
- ①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사단 법인이 상속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단 법인의 권리 능력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단 법인은 상속권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단 법인은 재산의 상속에 있어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태아는 상속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태아는 상속에 있어 권리 능력을 갖는다.
- ② 행위 능력의 존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진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로서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재판으로 피한정후견 선고 또는 피성년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지문의 정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만 20세에 달했기 때문에 성년자이고 따라서 행위 능력의 존부 즉,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된다. .
- ③ 의사 능력이란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 능력이 없는 자(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등)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 만 18세의 고등학생은 미성년자인 제한능력자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주의할 것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고 해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권리 능력을 갖는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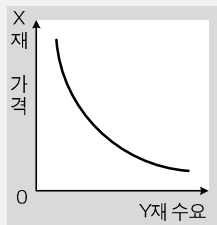
(A) X재의 가격 변화와 Y재의 수요 변화가 정(+)의 관계에 있다면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X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X재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Y재의 수요가 증가할 때 X재와 Y재의 수요 변화는 정(+)의 관계에 있게 되고 X재와 Y재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면 Y재는 X재의 대체재가 된다. 참고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한 데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교차탄력성이란 개념을 통해 이 반응의 민감성을 잴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차 탄력성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난다.

$$\epsilon_m = \frac{Y\text{재의 수요(량)의 변화율}}{X\text{재의 가격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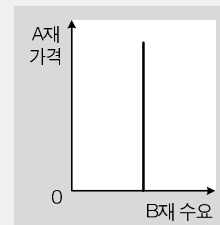
교차 탄력성은 두 상품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부호와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부채와 선풍기처럼 두 상품이 대체 관계에 있으면 교차 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게 될 것이며, 낫대와 낫시 바늘처럼 보완재 관계에 있으면 음(-)의 값을 갖게 된다. 나아가 대체관계나 보완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대체탄력성의 절대값이 더 커진다. 반면에 절대값이 0에 매우 가까우면 두 상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각각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인 경우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A재와 B재가 대체재일 경우



X재와 Y재가 보완재일 경우



A재와 B재가 독립재일 경우

대체재인 경우에는 비례 관계 즉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보완재일 경우에는 역의 관계 즉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기억해 두면 편하다.

(B) X재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가격은 하락하고 X재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Y재는 X재의 대체재이므로 Y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Y재의 수요가 감소하면 Y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Y재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가. Y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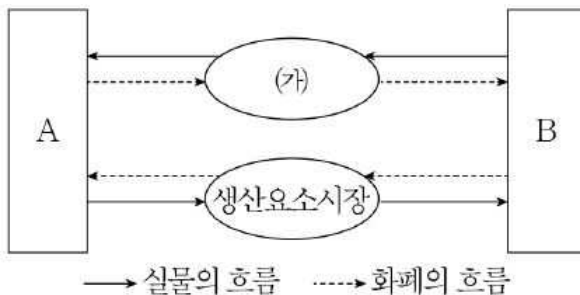
나. Y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다. Y재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라. 판매수입은 가격×판매량으로 나타난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므로 판매량도 감소한다. 즉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정답】 ⑤

9.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는 수요자이다.
- ② 임금은 (가)에서 결정된다.
- ③ A는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한다.
- ④ B는 노동 시장에서 공급자이다.
- ⑤ B는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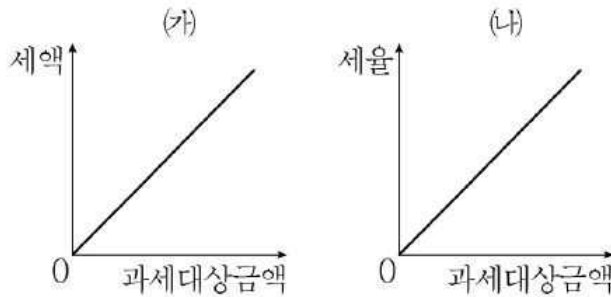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므로 A는 가게, B는 기업이다.

- ① (가)는 생산물 시장이므로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기업이고,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가게이다.
- ② 임금은 생산 요소인 노동의 가격이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다.
- ③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이다.
- ④ 노동은 생산 요소이고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가게이다.
- ⑤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가게이다.

【정답】 ①

10. 다음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산세 및 소득세는 주로 (가)의 형태를 띤다.
- ② (나)는 부가가치세 등에서 나타나는 세율 구조이다.
- ③ (나)의 조세 제도를 실시하면 과세 전에 비해 과세 후의 소득 격차가 커진다.
- ④ 조세 제도가 (가)에서 (나)로 변화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 ⑤ 조세 제도가 (나)에서 (가)로 변화하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작아진다.



(가)는 과세대상금액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하므로 비례세이다. 반면에 (나)는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하여 세율이 증가하므로 누진세이다.

- ① 재산세나 소득세는 보통 직접세이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다.
- ②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고 비례세이다.
- ③ 누진율이 적용되는 조세 제도를 실시하면 과세 전에 비해 과세 후에 소득 격차가 감소한다.
- ④ 비례세를 누진세로 바꾸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 ⑤ 누진세를 비례세로 바꾸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커진다.

【정답】 ④

11. 가~바의 사례를 외화의 수취와 지급에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쓰고 갔다.
라. 우리나라의 전자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받았다.
마.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 대금을 지불하였다.
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자기 나라로 송금하였다.

외화 수취

외화 지급

- ① 가, 다, 마 나, 라, 바
- ② 가, 다, 라 나, 마, 바
- ③ 가, 라, 바 나, 다, 마
- ④ 나, 라, 바 가, 다, 마
- ⑤ 나, 다, 마 가, 라, 바



외화의 수취란 외화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고 외화의 지급이란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 와야 한다. 외화의 수취이다.
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미국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외화의 지급이다.

다.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외화를 가지고 들어 와야 한다. 외화의 수취이다.
라. 우리나라의 전자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받았다면 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외화의 수취이다.

마.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외화의 지급이다.

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자기 나라로 송금하는 것은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외화의 지급이다. 【정답】 ②

12. 경제 현상과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수출로 계산할 수 있다.
나. 명목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라. 명목 국내 총생산은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을 GDP디플레이터라고 한다.
마. 경기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① 가, 라
③ 가, 다, 라
⑤ 다, 라, 마

- ② 나, 라
④ 나, 다, 라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수출-수입) 즉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순수출로 계산할 수 있다.

나.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생산물을 당해 연도의 가격(경상 가격)으로 계산한 GDP이므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다.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실업은 일자리가 주어졌음에도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마찰적 실업이 대표적이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뜻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라.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는 중요한 물가지수 중 하나인데, 아래 식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한 해의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100을 곱함으로써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실질국내총생산은 기준이 되는 해의 가격에 기초해 구해지는 반면, 명목국내총생산은 고려 대상이 되는 바로 그 해의 가격에 기초해 구해진다. 그러므로 이 둘의 차이가 바로 그 기간 동안의 물가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text{GDP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GDP}}{\text{실질GDP}} \times 100$$

마. 디플레이션시에는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경기 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정답】 ②

15. 다음은 사회·문화 시간에 부여된 모둠별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문화의 속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는?

- 선생님 : 조선 시대 여성의 복식 문화를 연구해 봅시다.
 A 모둠 : 저희는 유교가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B 모둠 : 저희는 경제 생활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C 모둠 : 저희는 신분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① 인터넷의 발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② 과거의 문화는 기록을 통해 축적되어 전승된다.
 ③ 복식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④ 한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성장하면 한국과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갖게 된다.
 ⑤ 한국인은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은 조선 시대 여성의 복식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유교가 끼친 영향, 경제 생활, 신분제와의 상관 관계를 모두 분석하고 있다. 이는 문화가 총체성을 갖기 때문이다.

- ① 인터넷의 발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총체성과 관련이 있다. 총체성이란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하는 총체이므로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 문화 요소 간 상호 연관성 즉 총체성으로 인해 한 부분에 변동이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어 변동이 일어난다.
 ② 과거의 문화는 기록을 통해 축적되어 전승된다는 것은 문화의 축적성과 관련이 있다. 축적성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상징 체계를 통해 문화가 다음 세대로 전승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생활 양식이 더해져 복잡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③ 복식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변동과 관련이 있다.
 ④ 한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성장하면 한국과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은 문화의 학습성과 관련이 있다.
 ⑤ 한국인은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문화의 공유성과 관련이 있다. 문화의 공유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의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원활한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정답】 ①

적중유제 이동훈의 명품 사회 문제집 337p 29번

29. 그림은 문화의 속성을 한 사회의 혼인 문화에 적용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 새로운 생활 양식이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② (가)의 사례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관광하러 온 사람이 김치먹는 것에 익숙해지는 현상이 해당된다.
 ③ (나)는 비물질 문화와 물질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④ (나)의 사례에는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한 사람을 보면 조문(弔問)을 떠올리게 되는 현상이 해당된다.
 ⑤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 상거래, 전자 우편 이용, 재택 근무 등이 발달하는 것은 (가), (나) 모두와 관련이 있다.



문화의 속성에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총체성이 있다. (가)에서는 혼인 문화의 형태나 요소가 다르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통해 문화의 변동성을 도출할 수 있고, (나)에서는 혼인 문화가 그 사회의 가치관, 친족 관계, 경제 생활, 성 역할 등과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통해 문화의 총체성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가)는 문화의 변동성, (나)는 문화의 총체성에 해당한다.

- ①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 새로운 생활 양식이 등장하는 것은 문화 접변의 결과 중 문화 융합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의 접촉적 변동은 문화의 속성 중 변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외국에서 한국으로 관광하러 온 사람이 김치 먹는 것에 익숙해지는 현상은 개인이 문화에 적응하는 것으로서 문화의 변동성과는 관련이 없다. 문화의 변동성은 문화 요소 자체가 변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 ③ 비물질 문화와 물질 문화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총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④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한 사람을 보면 조문을 떠올리게 되는 현상은 문화의 공유성을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상품 거래 방식, 소식 전달 방법, 근무 형태 등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총체성의 예이다. 또한 총체성은 각각의 개별 문화 요소들의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 ⑤

16.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학교는 교육을 통해 사회 성원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
- (나) 학교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

- ① (가)는 갈등과 대립을 일시적인 병리현상으로 간주한다.
- ② (가)는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 ③ (가)는 특정 계층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④ (나)는 사회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 ⑤ (나)는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 ① 갈등과 대립을 일시적인 병리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기능론적 관점은 유기체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와 같이, 예컨대 사람이 손을 다쳐 피를 흘리거나 병이 들면 여러 기관들이 작용하여 피를 멈추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와 같이, 사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③ 기능론은 모든 사회는 그 성원들 사이의 가치 합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성원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의해 교체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은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 사회 질서가 모든 사회 성원이 아닌 특정 집단의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④ 갈등론은 사회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 ⑤ 갈등론은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③

적중유제

이동훈의 명품 사회 문제집 294p 30번

30.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 자아를 발전시키고 인성을 형성한다. 또한 사회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에 적응하도록 하여 문화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 (나)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은 사회화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 규범, 가치 등을 보편화한다. 즉,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질서의 재생산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 ① (가)는 사회 질서가 특정 집단의 합의에 근거한다고 본다.
- ② (가)는 사회 갈등 세력을 기존 질서에 편입시켜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는 사회 구성 요소들 간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간과한다.
- ④ (나)는 사회 변동을 균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 ⑤ (가)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나)는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이해한다.



기능론은 사회 구성원이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이유를 규범과 제도에서 찾는다. 즉 기능론은 제도나 규범이 인간의 욕구를 안정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갈등론은 사회에는 희소한 재화나 권력의 배분을 둘러싸고 집단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한다고 보고 투쟁에서 승리한 집단은 교육이나 물리적인 힘을 통해 지배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피지배 집단은 이에 저항하려는 갈등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가)는 기능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고 (나)는 갈등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 ① 기능론은 모든 사회는 그 성원들 사이의 가치 합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성원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의해 교체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은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 사회 질서가 모든 사회 성원이 아닌 특정 집단의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② 기능론은, 유기체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와 같이, 예컨대 사람이 손을 다쳐 피를 흘리거나 병이 들면 여러 기관들이 작용을 하여 피를 멈추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와 같이, 사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능론적 관점에 의하면 갈등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는 구조를 통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 ③ 사회 구성 요소들 간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사회 문제 또는 갈등은 예외에 불과하다고 보는 기능론이다.
- ④, ⑤ 갈등론은 모든 사회에는 갈등이 편재하고, 사회는 그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에 의해 통합되고, 갈등이 변동의 요인이며, 변동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갈등이론에서는 갈등을 결코 비정적인 것도 병리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만 변동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정답】 ②

17. 다음 중 정보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된다.
- ② 전자 민주주의의 발달로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③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 ④ 사회적 관계 형성이 면대면 접촉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가정과 직장이 통합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③ 정보 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답】 ③

18. 다음 글에 나타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때 팝 음악을 주로 듣는 이들이 근거 없는 자부심에 한껏 고취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이 펼치던 것은 '내가 듣는 음악이 수준 높은 음악이다', '난 수준 낮은 한국 음악은 듣지 않는다' 식의 논리로 이는 ㉠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게임동아 2012.7.2. 김한준)

- 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 ② 집단 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 ④ 상대적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이다.
- ⑤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이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 절대주의는 다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로 구분된다.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를 가르는 기준은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는가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각각의 문화에 우열이 없다는 것이고, 문화 절대주의는 발전되고 좋은 문화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폄하하는 평가적 태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결합될 경우 제국주의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문화 사대주의는 특정한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믿고 숭상하여 자문화를 과소 평가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난 수준 낮은 한국 음악은 듣지 않는다' 식의 논리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 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다.
- ② 집단 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 주의이다.
- ③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 주의이다.
- ④ 상대적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 ⑤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정답】 ①

19.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우리 아버지는 27년간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2년 전 정년 퇴임을 하였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 옆집 할머니는 73세로 자식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할머니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일정한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 ① ㉠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 ② ㉠은 ㉡에 비해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 ③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④ ㉡은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 ⑤ ㉡은 ㉠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 보장 제도는 주로 금전적·물질적 지원을 하는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비물질적 보장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부조 제도는 생계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상호 부조의 성격 보다는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공공 부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의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생산적 복지 정책의 원리를 일부 도입하여 노력 여하에 따라 지원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시험에서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보호', '급여', '기초'라는 용어가 보이면 99%의 확률로 공공 부조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는 사회 보험보다는 공공 부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은 사회 보험에 해당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공공부조를 위한 법이다.

- ①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회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기업주, 국가가 공동 부담하여 수익자도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즉 사회 보험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사회 보험에 비해 공공 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공공부조는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⑤ 상호 부조란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피보험자, 기업주, 국가가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 보험이다. 【정답】 ④

2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기의 수재’, ‘엄친딸 종결자’, ‘최고의 여성법학자’, ○○○.
 32세에 한국계 최초로 하버드법대 교수에 임용되었다. 이후 4년만에 교수단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 ㉠ 아시아 여성 최초로 ㉡ 하버드법대 종신교수로 선출되었다. ㉢ 하버드법대 종신 교수 ○○○은 아메리칸발레학교, 줄리아드 예비학교, 예일대 학부, 옥스퍼드대 대학원, 하버드법대 대학원 학력까지 ㉣학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자녀가 재학하길 원하는 ㉤ 학교를 5군데나 거쳤다. 1월초 출간된 ○○○의 첫 에세이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는 그녀의 화려한 이력에 가려진 예술에의 열정, 학업에의 끊임없는 정진,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서 찾은 즐거움까지, ○○○ 교수의 일과 삶의 원칙에 애정이 덧입혀져 잔잔히 녹아든 책이다.
 (한국경제TV 2013.1.14. 인터넷뉴스팀)

- ① ㉠은 성취 지위이다.
 ② ㉡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③ ㉢은 ○○○의 외집단이다.
 ④ ㉣은 귀속 지위이다.
 ⑤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① 아시아 여성은 귀속 지위이다. 귀속지위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지위를 말한다.
 ② 보상은 역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할 행동에 주어지는 것이다.
 ③ ○○○은 하버드 법대 종신 교수로 선출되었으므로 하버드 법대는 ○○○의 소속집단이며 내집단이다.
 ④ 학부모는 성취 지위이다. 성취지위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한 지위를 말한다.
 ⑤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답】 ⑤